

인하대, '사회봉사'와 '기업문제 해결'로 지역사회와 소통



1 지난 11월 23일 조명우 총장이 김장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 지난 10월 인천시 남구 학익동 호미마을을 찾은 인하대 조형예술학과 JEP 수강생 등 인하대생들이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인하대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나섰다. 지역 사회 연계 봉사 활동인 'JEP'(Joint Education Program)가 좋은 본보기다. JEP는 수업과 봉사를 함께 이수하는 교과목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와 함께 인하대 산학협력팀은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프로젝트를 통해 업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항공, 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학생과 산학협력단 교수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지역사회 연계 봉사 교과-JEP

인하대는 지난 2015년 1학기 4과목을 시작으로 사범대 6개 학과와 간호학과,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등 8개 학과에서 14개의 지역사회 연계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JEP는 기존 전공과목 중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교과목을 활용한다. 시각정보학디자인학과는 지난해 JEP 연계과목인 '지역사회와 디자인'을 개설해 인천 동구 '괭이부리마을'을 찾았다. 학생 31명이 9개 팀을 이뤄 동네 소식지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포스터 등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각물을 제작했다.

한 학기가 끝난 뒤 결과물을 가지고 괭이부리마을에 있는 '우리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우희수(24) 학생은 "책으로만 봤던 괭이부리마을에 직접 찾아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 봉사활동을 떠나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며 "수업으로만 배웠다면 미처 알지 못했을 부분들을 JEP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학과도 2016년부터 JEP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년 별로 JEP 총괄 교수를 두고 학년마다 한 과목씩 모두 네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여학생, 남학생 가정형 Wee 센터와 행복한 가정 Wee 센터, 한국도박문제 관리 인천센터, 연구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5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남·여학생 Wee 센터는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다. 학생들은 '정신간호학실습'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해 청소년들을 만난다. JEP 수업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간호학과 4년 김나령(25)씨는 "학기 공부와 실습, 과제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일은 쉽지 않아 친구들 몇몇은 수강을 포기하기도 했다"며 "내 시간

을 최대한 쪼개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기업연계 학생팀 프로젝트-Problem solving Project

인하대는 지역 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교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Problem solving Project'는 '학생-기술전문가-교수'가 한 팀으로 연구 개발팀 프로젝트를 운영, 학생들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상을 이해하고 기업은 학생들을 채용할 기회를 갖는다. 인하대는 'Problem solving 경진대회'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참가팀을 모집한 '항공산업 융복합 Problem Solving 경진대회'는 지역 내 항공 부품산업 업체 7곳이 항공 전자부품과 신소재 개발, 금형 제작 등 과제를 제안했다. '물류산업 융복합 Problem Solving 경진대회'는 지역 내 물류 기업이 제안한 물류 고도화 방안, 물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 관세제도 협정별 분석 등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다. 이어 기업 실전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I-GPS(INHA Group for Problem Solving) 사업단도 운영 중이다.

학생 참여 봉사 프로그램 활발

현재 인하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학생 서포터즈는 6개다. 외국인 학생들과의 문화교류와 한국 생활 도우미로 활동하는 ISL(International Students Lounge) 서포터즈는 신생 동아리다. ISL서포터즈는 단순 교류에서 벗어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할 안내와 캠퍼스 투어와 같은 기본 활동을 비롯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한국과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6개 나라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의 봉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봉사 동아리도 활발하다. 인하서포터즈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인하 국토대장정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정단을 모집하고 일정과 숙식 장소, 홍보 등 행사와 관련한 모든 일을 담당한다. 발전기금 서포터즈 '인하럽인'과 인하인스타, '인하아띠'는 학교 홍보가 주된 업무다. 재학생·졸업생들에게 학교 발전기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발전기금 조성 분위기 확산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인하인스타는 영상, 사진 등이 담긴 콘텐츠를 활용해 SNS상에서 학교를 알리고 있다. 인하아띠는 학교 입학 홍보대사다. '일일대학생체험', '캠퍼스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중·고교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시각으로 직접 만든 수시전형 안내 동영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는 여러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갖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특히 2015년부터 시작된 JEP는 의예과나 간호학과는 병원이나 노인시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수업을, 아동심리학과는 어린이집 등에서 봉사하고 공대는 중소기업에 돕는 수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교과목을 만들 수 있어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키우는 데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